

과업 24: 창조세계와 취약계층 돌봄

협업 구성을 위한 도입 질문

교회, 초교파 단체, 일터의 기독교인들은 복음 증거의 필수 요소로서 창조세계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실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제자화 하기 위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

설명

창조세계 돌봄은 현대 세계의 핵심 이슈이다. 이 이슈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 창조세계 자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로마서 1:20)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취약 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모든 피조물 위에 있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온 땅을 포함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약 계층을 돌보는 것이 단지 선교를 위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창조세계 돌봄은 단지 선교를 위한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 창조세계와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일하고 섬기는 곳에서 제자 삼는 모든 노력으로 표현되는 대위임령의 내용에 필수적이다.

창조세계를 돌보고 보호하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동기와 가장 취약한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으로, 이 대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을 탐구한다:

협업 질문

-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지구를 지키는 복음의 명령을 교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 선교와 일터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포함하도록 그들의 비전을 고양할 수 있는가?
-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봉사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 과학, 비즈니스를 사용할 수 있는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선물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매우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의 다양성을 고갈시키며,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황폐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 지역교회, 선교단체,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살롬'이라는 성경적 비전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순종할 수 있는가?
- 교회/초교파 선교단체/일터의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증거와 제자 삼기에 필수적인 비즈니스와 선교에서 지구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실천을 하기 위해 어떻게 여러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가?
- 교회와 일터/사회적 벤처 사업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세계 남용에 취약한 희생자들에게 다가가서 제자 삼고 지혜롭게 돌볼 수 있는가?

하위 주제

- 창조세계 돌봄
- 지속 가능하고 단순한/검소한 생활방식
- 생물다양성 보전
- 기후 과학 및 기술
- 빈곤층과 사회 주변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봉사하기
-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며, 취약 계층을 돌보는 경제 모델
- 리더십, 자원 사용, 폐기물 처리 및 혁신에 있어서 일터의 지속 가능성
- 위험에 처한 어린이

2024 서울-인천 대회 준비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읽어보라.

- 로잔 신학위원회가 작성한 서론
- 1부,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대위임령 현황
- 2부, '창조세계 돌봄'과 '빈곤과 접근성 격차'(Access Gaps)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기회'와 '세속주의', '미디어 선전과 탈집중화', 그리고 '부채 비율 상승'에 관한 논문
- 3부, 주로 당신이 섬기는 지역교회나 선교단체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자료